

# 추위·인파 걱정없이 힐링 만끽... 초겨울 호캉스 인기몰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 티몬, 전년 대비 호텔 매출 63% ↑

호텔업계, 연말 패키지 출시 분주 뮤지컬, 트리 제작 등 혜택 풍성

초겨울 호캉스를 찾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호텔 매출은 코로나19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티몬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국내 숙박 상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호텔 카테고리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 112% 급증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에도 약 63% 오른 수치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호텔업계는 연말 패키지를 출시하고 있다.

조선호텔엔리조트의 최상급 호텔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이하 조선 팰리스)'은 뮤지컬 '물랑루즈!'와 함께 '조선 팰리스 x 뮤지컬 물랑루즈!' 패키지를 12월 24일까지 선보인다. 아름다운 고층 시티뷰를 조망하며 조선 팰리스만의 시그니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객실에서의 1박과 뮤지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그랜드 마스터룸

/조선호텔엔리조트

'물랑루즈!' 티켓 2장이 포함된다.

마스터스 객실 선택 시엔 R석 티켓을, 스위트 객실을 선택하면 VIP 티켓과 함께 뷔페 레스토랑 '콘스탄스'에서 2인 조식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패키지 이용 고객은 조선 웰니스 클럽의 피트니스,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며, 스위트 객실 이상부터는 사우나 이용도 가능하다. 뮤지컬 공연 특성 상 공연일 기준 1주일 전까지만 예약이 가능하며 1월 1일 이후의 패키지 오픈은 오는 11월 22일, 뮤지컬 '물랑루즈!' 2차 티켓 오픈 이후 공지 될 예정이다.

서울신라호텔은 겨울 시즌을 맞아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볼 수 있는 '윈터 블라썸(Winter Blossom)' 패키지를 선보인다. '윈터 블라썸' 패키지는 디럭스 룸(1박), 미니 트리 만들기 세션 참여 혜택(2인), 체련장, 실내 수영장 혜택(2인)으로 구성되며,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 중 이용 가능하다.

패키지 이용 고객은 체크인 당일 플라워 세션에 자동 등록되며 매주 금~토요일 오후 5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참여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직접 만들며, 함께 수강하는 친구, 연



서울신라호텔이 윈터 블라썸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를 진행한다.

/서울신라호텔

인, 가족과 함께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플라워 세션은 영국의 럭셔리 플라워 브랜드 '백퀸즈 플라워'와 협업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준비했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수서고속철도 SRT와 협업해 지속가능한 호캉스를 경험할 수 있는 '힐링 스테이' 패키지를 선보였다.

SRT 고객 전용으로 선보인 이번 패키지는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탄소감축을 장려하고자 기획했다. 패키지 예약

후 체크인 시 노선에 관계없이 당일 SRT 승차권을 제시하면 연말 호캉스를 위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패키지 이용객에게는 프리미엄 뷔페 '온 더 플레이트'를 비롯해 이탈리아 레스토랑 '라스칼라', 일식당 '사카에', 중식당 '남풍' 등 호텔 내 전체 식당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2만 리조트 머니를 지급한다.

휴식과 재미를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야외 온천 씨메리트 오션스파 풀을 데이 이용으로 탁 트인 해운대를 바라보며 따뜻한 온천수에서 온전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투숙 기간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여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학중 티몬 투어비즈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여행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슈퍼워크, 티몬투어 여행 박람회 등 다양한 여행 행사를 진행하니 연말연시 여행 계획도 티몬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롯데百, 리사이클링·업사이클링 캠페인 강화

카페·식당 등 재생가능 용기 사용 확대 내달 업사이클링 굿즈 사은품 이벤트

롯데백화점은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 정책의 규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단순히 일회용품이나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친환경 활동의 의미와 범위를 리사이클링 및 업사이클링까지 확대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롯데백화점 내 카페, 식당, 식음료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가능 용기 등에 음식을 담아 고객에게 제공한다. 일회용품 제한과 관련해 지난달 9일부터 점포내에 안내고지물을 비치했으며, 이달 1일부터는 안내방송을 통해 사전에 고객들에게 알렸다. 규제 대상이 아닌 백화점의 MVG 룸에서도 이달 1일부터 선제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을 중단하고, 다회용기



롯데백화점은 내달 2일부터 백화점 전점(32개 점)에서 폐기물을 활용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굿즈를 고객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롯데쇼핑

그릇, 컵 등을 사용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내년에는 MVG룸에서 제공하는 테이크아웃 음료의 친환경 제품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내달 2일부터는 백화점 전점(32개 점)에서 폐기물을 활용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굿즈를 고객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이번 업사이클링에 사용한 폐기물은 지난 여름 롯데백화점의 외벽에 걸렸던 18개의 대형 현수막과 울 추석 선물 패키지에 포함된 보냉백을 회수한

것들이다. 특히, 추석 보냉백의 경우 회수 이벤트를 통해 총 9161개가 회수됐고 이중 3832개가 업사이클링에 활용됐다. 12월 2일부터 백화점에서 3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현수막을 재활용한 카드 홀더,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보냉백을 재활용한 크로스 파우치를 증정한다.

롯데백화점이 제작한 굿즈들은 업사이클링 스타트업 '누깅'과 협업한다. 롯데백화점은 누깅과 함께 12월 1~14일 롯데월드몰 잠실점 지하 1층에서 친환경 팝업 행사도 전개한다.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며, 롯데백화점 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해 제작한 토트백, 크로스백, 카드지갑 등 5종의 품목도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환경재단과 함께 진행되는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는 내년 설 명절에도 진행될 예정이며, 백화점 및 보냉백 배송 주요 지역을 찾아가 보냉백을 회수하는 리얼스 부스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 KGC인삼공사 카타르서 K-홍삼 우수성 전파

200여 매장에 정관장 제품 입점

글로벌 종합건강기업 KGC인삼공사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카타르에서 홍삼 알리기에 나선다.

KGC인삼공사는 카타르에 위치한 유럽 No.1 건강식품삽인 홀랜드앤바렛(Holland&Barrett)을 비롯해 200여 매장에 정관장 제품을 입점시켜 전 세계에서 방문한 글로벌 관광객에게 대한민국의 홍삼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홀랜드앤바렛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의 모든 주요 도시에 널리 퍼져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인도, UAE 등 전 세계 16개국에 1400여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글로벌 건강식품 체인이다.

KGC인삼공사는 홀랜드앤바렛을 시작으로 고급 슈퍼 체인 '알미라', 프랑스



카타르 현지인이 매장에서 정관장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KGC인삼공사

대형할인 체인 '까르푸' 등 대형 체인점은 물론 축구 경기장 내 매장 등 200여 개 매장에 입점해 카타르 내 핵심 상권 곳곳에서 정관장 홍삼 제품을 알린다. 카타르에서 판매되는 정관장 제품은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원, 활기력 등 국내 소비자에게도 익숙한 제품으로 향후에도 현지에 특화된 제품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 이마트24 이달 말까지 주류·안주류 대규모 할인

이마트24가 세계 축구대회 집관축을 겨냥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연다.

이마트24는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맥주 120종에 대해 6캔 13500원에 제공하며, 25종의 와인·양주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할인한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축구 경기를 응원하는 집관축을 겨냥해 맥주, 와인 안주로 어울리는 핫바, 냉동만두, 막창, 곱창 등 안주·간편식품 30여종에 대해 1+1, 2+1 텀 증정행사도 펼친다.

특히 이마트24는 축구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대한축구협회(KFA)와 협업해 상품 패키지에 선수들의 사진이 들어간 축구 먹거리 8종을 판매

하며, 대한민국 경기 당일(11월 24일, 11월 28일, 12월 3일)에는 해당 상품에 대해 반값 할인을 진행한다. 경기 당일에 쥐포, 오징어, 육포 등 인기 안주 10종을 행사카드(BC·현대카드)로 결제 시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마트24 영업마케팅팀 김주호 파트너는 "온 국민이 기대하는 세계 축구 대회와 함께 SSG랜더스 우승 기념 행사까지 겹쳐 이례적으로 예년보다 풍성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며 "이번 대규모 행사를 통해 고객들과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을 응원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 CU, 전국 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에스원 협력... 안전 플랫폼 역할 수행

CU가 위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안전 플랫폼 역할을 자처한다.

CU는 국내 보안 업계 1위 에스원과 손잡고 전국 1만6000여 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공공 안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환

자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응급 구조장비다. 심정지 골든 타임(4분) 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

CU에 설치되는 에스원의 자동심장충격기는 덮개를 개방하는 즉시 전원이 켜지며 조작 버튼 1개로 조작이 간편해 보다 신속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스위치 전환으로 성인과 소아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수도권외의 인구 밀집 지역 내 CU 직영점을 중심으로 먼저 설치되고 향후 세부 설치 기준을 수립해 전국 가맹점으로도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CU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면 의료 시설이 없거나 구조 인력들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 대처가 원활해지고 중장기적으로 전국민 심폐소생 교육에도 일조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